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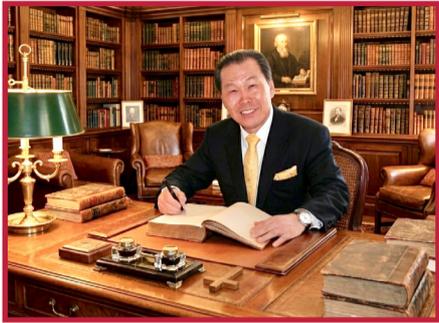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3월 8일 (제 1348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기차 타고 가는 여행

인생은 기차를 타고 가는 여행이다. 기차가 머무는 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린다. 우리는 그 안에서 연을 맺으며 여행을 계속한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너른 평야를 달려 땀 흘린 세상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론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음은 곧 터널을 빠져나갈 것을 알기 때문이다. 터널을 통과하고 만난 태양은 어찌 그리 환하고 아름다운지. 기차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어느 역에서든 내린다는 것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내가 내리고 싶을 때 내리는 것이 아니고 뜻하지 않게, 예고 없이 다음 역에서 내린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4:14). ‘어떤 인 긴 인생, 어떤 인 짧은 인생’이란 찬양 가사가 있듯이, 기차에 오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하차하는 사람도 있고, 제법 긴 기차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내린다. 고로 내가 탄 기차의 종착역은 기차의 차고지가 아니라 내가 내리는 그 역인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미워서 안 되고, 감사를 미워서 안 되고, 용서하는 것을 미워서 안 되고, 베푸는 것을 미워서 안 된다.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한다.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기차는 후진하는 법이 없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자. 지금 용서하고, 당장 베풀고, 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자. 기차에서 내릴 때 한 점 후회가 없도록. 그런데 우리가 기차에서 내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 기차에서 내리든 돌아갈 내 집이 있기 때문이다. 내 집에는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나를 위하여 집을 멋지게 꾸미고 계시니 기차에서 내리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밖에. 여행으로 지친 영혼이 거기서 쉬를 얻으리니. 기차에서 내리는 그날, 우리는 천상병 시인처럼 말하리라. “아름다운 여행이었노라, 아름다운 소풍이었노라.”

믿음에 지혜가 따르면 못 이룰 것이 없다

2026년 4월 11일, 인천교회 교육부가 연합하여 인천교회 대성전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이월드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를 위해 인천 교육부는 1년이 넘도록 기도했고, 대성전을 채우겠다는 마음을 아름답게 보신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 집회의 성공과 격려, 그리고 불을 붙이시기 위해 지난 2월 마지막 토요일, 인천교회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셨다. 총회장 목사님은 청소년들을 향해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다. 핵심은 한 가지였다. ‘믿음에 지혜가 따르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우리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면, 삶으로 증

다. 지혜란 바로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지렛대를 활용하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지렛대가 바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었던 고(故) 정주영 회장이 소 천 마리를 끌고 북한에 갔을 때, 그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북한의 문이 열리고, 최고위원장인 김정일까지 만났지 않았던가? 아랍과 예서가 화해할 때 선물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가.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알현할 때 어떠한 선물을 들고 나가지 않았던가. 나도 해외집회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내 목적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만, 먼저 그들의 마음을

신다.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이다. 지혜는 인간의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청소년이 ‘지혜를 구하겠다’는 기도로 응답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겠다고 결단했다. 목사님은 ‘한 사람이 변하면 공동체가 변한다’고 말씀하셨다. 햇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청소년 한 사람이 학교와 가정, 교회를 변화시킬 수



인천 청년부 토요일예배(2026년 2월 28일, 인천예수중심교회 청년부 예배실)

명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믿음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구체적 신뢰다. 성경 속 인물들이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약속을 붙드는 믿음과 그것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지혜가 함께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란 곧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고, 간접자본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지렛대를 활용하면 편하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

열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 벡타이나 자개가 박힌 작은 선물이다. 그러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 집회를 돕는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않은가.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사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닌가. 전도할 때도 선물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선물로 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들의 마음을 열라는 것이다. 그들이 진리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것 아닌가.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아름다운 지렛대다. 이는 처세술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잠18:16). 성경은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돼라’고 하

있으며, 대동단결을 강조하셨다. 목회자와 교사, 그리고 청소년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일 때 불가능은 가능이 된다. 비가 오면 우산을 만들고, 강이 막히면 다리를 놓듯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다. 4월 11일, ‘이 집회는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받은 지혜를 활용하여 집회를 구상하고 노력한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집회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 성공이 인천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집회 후에 성전 앞마당에서 삼겹살 파티가 이어졌다. 이 또한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 챙기는 목사님의 지혜가 아닐까. 인천교회 청년부 담임 이정금 전도사

미국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

* 날짜 : 3월 25일(수)~4월 3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4:7~9)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구하라

다윗 사후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린 솔로몬은 잠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시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밤중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왕상3:5) 말씀하셨고,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3:9)라고 아뢰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지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심은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기도는 가장 절실한 것을 구해야 한다고요.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가장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장 귀한 것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찌니라”(잠4:7).

지렛대를 활용하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귀를 달라거나 수한을 연장시켜달라고 하지 않은 솔로몬이 기특하고 예뻐서 특별히 부와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얻으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잠3:15~16),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폼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잠4:8~9),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잠9:11). 지혜를 얻으면 부(富), 귀(貴), 영화(榮華), 장수(長壽)가 따라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자니 지혜가 의인화(擬人化)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4장에는 ‘그가 너를 높이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라고 하였고, 또 잠언 9장에는 ‘나 지혜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잠4:11).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잠9:10). 지혜는 습득하여 얻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곧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지혜를 구하면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해야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가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잠



총회장 이초석 목사

2:7). 저는 목회 41년 동안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70여 개국에 분포되어있는 성도들을 관리할 수 없기에, 또한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 같은 길을 갈 수 없기에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 우리 교단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물질적인 고통 없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받은 지혜 중의 하나는 이것입니다. 제가 해외집회를 다니다보니 전혀 연고가 없고, 지인도 없는 터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자를 활용하라.”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으로 하려고 하면 허리만 다칩니다. 그럴 때 지렛대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되듯, 영향력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지렛대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노쇠하자

밋세바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자 서두르는데, 여기서 밋세바는 다윗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단 선지자의 힘을 빌립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을 찾아가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계문제를 매듭짓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도한 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들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승낙할 뿐 아니라

전적인 도움을 줍니다. 저도 해외에 나가면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자를 잡습니다. 인도 1차 집회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이 집회는 당초 계획과 많은 차질을 빚어 개최지가 변경되는 난항에 봉착했습니다. 집회 총책임자로 먼저 인도에 입국한 임윤석 집사는 전화로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낱낱이 보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 주께서 이미 준비해놓으셨다.” 그는 제 말대로 수소문한 끝에 감리교 총회장을 찾아가 집회 배설을 요청했고, 성령의 역사 비디오테이프를 접한 총회장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덕망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6선 국회의원을 소개해 줌으로써 집회를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를 잡는 것은 인맥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해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맥은 금맥이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다리인 것입니다. 또한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잠18:16)는 말씀을 응용하면 충분히 영향력 있는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솔로몬을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많은 향품과 금, 보석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이에 솔로몬이 감동해서 스바 여왕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알게 했고, 스바 여왕이 갈 때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왕상10:13).

또 하나, 지혜는 이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1년 전 캐나다 밴쿠버 집회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마10:16)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뱀에 대해 연구했더니, 뱀은 속이 있으나 없는 듯 행동하고, 아름다우며, 소리 내지 않고, 먹이를 잡을 때 사력을 다하며, 해마다 허물을 벗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기에 충분합니다. 자신의 것을 다 발설하지 않는 지혜요(잠25:2),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므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지혜요, 일을 도모함에 있어 다투지 않는 것이 지혜요, 과거의 것을 잘라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지혜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이며, 자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생활화하면 인정받는 성도요, 가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2절에는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명철(明哲)은 사리나 도리에 밝은 것을 말하는데, 이는 명철이 지혜의 바탕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리나 도리에 밝은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고, 그것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금보다 귀한 것이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사모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 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경외(敬畏)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 조금 격이 다릅니다. 경외는 높임이고, 존경이며, 그의 위엄을 인정하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덧입히사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지혜가 있으면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책을 읽다 ::

누가 바리새인인가?

바리새인들의 본래 의미는 경건주의자들, 기록하여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적으로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출발한 사람들이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변질되어 바리새인이 라 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자들, 자기들 만 옳은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말은 그럴듯한데 행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 로 전락했다.

예수께서 많은 자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 셧는데, 그중에서 가장 격하게 책망한 부 류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다. 마태 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 새인들아’, ‘소경된 인도자들이’, 급기야 ‘독사의 새끼들이’ 까지 격노하셨다.

‘외식’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 신은 다 알면서 아닌 척, 그런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것이고, ‘소경된 자들’이라는 말씀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이다. 진짜 자신의 모습이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인 줄 모르 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살았다는 이 름, 목사, 전도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라 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실상은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영혼인 줄 모르고 사는 사대 교 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3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 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서 바리새인 은 자신이 세리와 다르고, 자신이 의롭다 고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였다고 말씀하셨다.

목회 39년 차, 오랜 세월 하나님과 목사님 은혜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내가 가 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리새화다. 나도 모 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거나 변질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 가고 있는 줄 착각하며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 말이다. 성도 들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지 말라’ 하면 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심하 게 망가져서 그런 감각조차 없이 살고 있 지는 않은지, 심령의 감동과 감격은 사라 지고 메마른 영혼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목 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 늘 점검대상 1호다. 점검 결과 아니면 통회자 복하고 통째로 갈아엎어야 한다. 임시처방 으로는 어렵다. 문동이는 깊이 찔려야 통 증을 느낀다.

성전 안에 각색 우상으로 가득한 에스겔서 8장의 성전 모습을 시급적으로 삼아 내 영 혼에 투영하여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 내 성전에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자리 잡고 생 각을 도둑맞고 있지는 않은지, 세월이 가 면서 때가 끼어 있지는 않은지 진실하고 솔직하게 점검, 또 점검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육체는 노화되더라도 영혼 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 주 신 주님께 감사,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 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 할렐루야. 아멘

이시대 목사

:: 성경에세이 ::

숙원사업(宿願事業)

여보게!

이번에 서울성전 건축위원장을 맡은 염상 섭 장로가 서울성전 부지를 계약하던 날 내게 이렇게 말했네.

“목사님, 이제야 숙원사업을 이루셨네요.”

염 장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는 잘 알 지.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리고 한시를 내 려놓은 나에게 축하한다고 한 말이라는 것 을. 그러나 나는 염 장로에게 말했네.

“염 장로, 내 숙원사업은 교회 짓는 게 아 니야. 내 숙원사업은 오직 땅끝까지 복음 을 전하는 거야. 서울성전을 짓는 것이 숙 원사업이었다면 나는 벌써 지었을 걸세. 선교사업에 쓸 비용을 끌어왔으면 벌써 교 회를 지었겠지. 내 숙원사업은 오직 구령 사업이라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 령이 내 평생 이를 숙원사업이야.”

여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26년 오매불 망하던 서울성전을 짓네. 그러나 성전이 왜 필요한가를 한 번쯤 생각해야 하네. 불 편해서? 88측에서 나가라고 하면 갈 데가 없어서?

물론 우리 성도들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예배드릴 때 마음이 아픈 건 사

실이야. 성가대가 추운 겨울에 바닥에 얇 은 스티로폼 하나 깔고 복도에서 연습하는 것도 속상하고, 예배시간에 차를 빼달라는 공고가 스크린에 뜰 때도 마음이 불편하 지. 주차비 때문에 성도들이 끝나고 나갈 때 마음이 급한 것도 알고 있네. 우리 성전 이 있으면 그런 불편이 없을 텐데 하는 마 음이 왜 내게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유는 더 많 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기지를 세운다는 뜻이라네. 교회는 모이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 라 기점을 두고 흠어져 세상을 살리는 곳 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야. 서울성전은 전 도의 문을 넓히고, 선교의 날개를 펴며, 다 음 세대를 살리는 복음의 전초기지요, 하 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구령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새 성전에서 안주하지 않을 걸세.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견고히 확장하는 본부가 될 걸세.

부디 공사 기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 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게나. 분명히 아 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게 될 걸세.

봉우

신어보고 시면 되지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다.

춘추시대에 차철이라는 사람이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해 종이에 자기 발 의 본을 땀다. 그런데 십 리나 되는 길 을 걸어 시장에 온 차철은 그만 자기가 땀 놓은 본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 게 되었다. ‘아차’ 싶은 그는 집까지 허 겁지겁 십 리나 되는 길을 달려 땀 놓 은 발본을 가지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 다. 그러나 도착해 보니 이미 장은 과 한 상태였다.

허탈한 마음에 차철이 시장 구석에 쭈 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한 사 람이 다가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차철 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자 이를 들 던 그 사람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아이고, 답답한 사람 같으니! 당신 신 발을 사는데 본이 왜 필요하오? 직접 신어보면 될 것 아니오.”

“그래도 본땀놓은 것이 내 발보다 더 정

확할 거라 생각했지요.”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습과 능력을 보이셨다. 그런데 바리 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들고나와 대항했다. 본뜬 것을 실제에 들이밀고 는 본뜬 것과 차이가 난다고 우기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만나본 사람들 중에 문화적인 지식이나 이론 앞에 그 경험을 팔아먹는 것을 본다. 이것이 자 기 신발을 사면서 본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 허탄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같 으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아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믿음

을지로에 새로 꾸며진 총회장 목사님의 집무실에는 여전히 ‘세계교구’ 액자가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목사님의 열정은 단 한 순간 도 식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이 런 총회장 목사님께서 세계교구를 걸고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 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도로 되게 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다. AI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여 로 봇이 정밀한 수술을 진행하는 최첨단 의 료과학 시대에도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 고 커머거리는 듣지 못하며, 앉은뱅이를 일어나 걷고 뛰게 하지 못한다. 총회장 목사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 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증 거하시는 것이다.

우리 문산교회에 말기암 환자분 한 분이 전도되어 교회에 나오셨다. 교회는 처음 오신 분인데, 그분을 전도하신 장로님께 서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라고 전 하였고, 주변에서는 이단 교회라고 반대 가 많았다. 그런데도 그 새신자분은 누 가 뭐라든 내 병만 고치면 된다며 쫓쫓 하게 1년 6개월이 넘도록 한 번도 빠지

지 않고 교회에 나와 주일에배를 드리셨 다. 통증이 있고 열이 올라 밤새 잠을 못 주무신 날에도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 셧다. 그분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이다.

성도님은 매일 전화로 하루도 빠짐없이 귀신을 쫓고 기도를 받으신다. 전화로 기도 받으시고, 매일매일 기도 받는 그 힘으로 살아가신다. 위중한 말기암 환자 라 3주에 한 번씩 매년 검사를 받으러 병 원에 가시는데, 암이 진행되지 않고 미 동 없이 그대로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암을 결박하여 꼭 묶어놓으셨다고 고백 하신다. 빌 때마다 평온하고 이번 주일 에도 얼굴이 아주 밝고 환하시다. 믿음 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는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 나님이고, 기도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 는 그것이 믿음이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 매일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공 급받는 힘으로 살아가길 소망한다. 우리 교단 신론 간증란에 성도님의 환한 얼굴 이 실리는 날을 기도하며 기다린다.

장순천 목사

취장에 있던 흑이 사라졌습니다



로 예배 안 빠지고 믿음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머리 아픈 것도 다 없어지고, 잔병도 다 떠나갔습니다.

2025년 3월 13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취장에 흑이 있다고, CT를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마음도 답답해서 상화평 목사님께 전화로 드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총회장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했습니다.

노량진 기도처에 가서 총회장 목사님께 취장에 흑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어느 집사님 간증을 해주시는데, “주먹만한 암 덩어리도 기도 받고 없어져. 걱정 마! 흑은 가루를 만들어버려야 해.”라고 말씀하셔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기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라는 찬양이 두 번 씩이나 제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 나간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

나님이 계신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늘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살았는데, 제가 13세 때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마19:26)는 말씀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교회를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몰랐고,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몰랐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런 제가 노량진 기도회에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이를 후 병원에 가는 날이라서 갔더니 CT를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러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 이상하네. 흑이 없어졌네.”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흑이 가루가 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분명히 손톱만한 검은 흑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흑이 가루가 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좋고 기쁨이 샘솟으면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조장님, 권사님께 감사할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큰아들 원일만이 갑자기 피부근염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바이러스 병이 몸에 침투해서 염증수치가 4,000이나 올라가 병원 원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든가 입원해서 이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자기 발로 병원에 걸어 들어오고 걸어서 나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지금은 염증수치가 900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염증수치가 더 떨어져야 한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희 아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시면서, “너희 엄마도 병을 고쳤으니까 너도 고칠 거야.” 하셔서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루빨리 주님께 들어와서 아버지 품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사 제 삶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은평교구 원대복 장로, 박화평 권사

:: 성경에서 배운다 ::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저희 아버지는 평생 유교 사상을 따르셨습니다. 향교의 원로이셨던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논어』, 『소학』, 『중용』을 익히셨고, 교회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셨습니다. 성경도 몇 차례 읽으신 뒤 중용과 비교하며 제게 기독교에 대해 반문하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예수를 영접하시기 어려운 분이셨죠. 우리 가족의 첫 밑일이었던 언니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 지금까지 40여 년 가까이 가족 구원, 특히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왔습니다. 언니의 열매로 막내인 제가 성령을 받은 후, 함께 기도한 지도 벌써 26년이 흘렀고요. 그 시간이 쌓여 아버지는 지난 11월, 예수를 영접하시고 평안 가운데 소천하셨습니다. 몇 주 전부터 언니가 틀어드리는 요한복음 봉독을 계속 들으셨고, 임종 몇 시간 전 광주예수중심교회 최권능 목사님의 인수기도를 받으셨으며, 언니와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백하신 뒤였습니다. 임종 직후, 감사하게도 이초석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와 위로를 해주셔서 그 시간은 슬픔보다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 역시 기독교 장례로 일사천리 진행되었고, 입관식 때 빈 아버

지의 모습은 ‘해처럼 빛난다’는 표현이 꼭 맞을 만큼 평안하고 환하셨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나이지리아 속담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어린 시절, 산책 나가신 아버지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하 선생, 예수 믿읍시다!”라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름 모를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생신 때마다 “주(主)님을 영접하시라고 주(酒)님을 보냅니다.”라며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술을 선물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최권능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목사님께서서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틈틈이 간식을 들고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술은 안 마실 수 없지요.” 하시며 너털웃음을 지으시던 아버지가, 결국 목사님의 인수기도를 받고 아멘을 세 번이나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장례예배 내내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

신 광주교회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 덕분에, 아버지를 은혜 가운데 환송하고, 믿지 않던 다른 가족들까지도 어색함 없이 장례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영혼 구원에 대해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장례에 진심으로 위로해주신 서울교회 교역자분들과 청장년부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그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겠노라 다짐합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계신, 혹은 낙담하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와 축복을 전합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시길,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하인명 집사

Good News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식 주례사를 하면서 말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귀담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숙연한 모습으로 귀를 열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전7:2)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진이 국화꽃 가운데 걸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은 뒤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 *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 * 매주 월, 화, 목, 저녁 8시
- *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